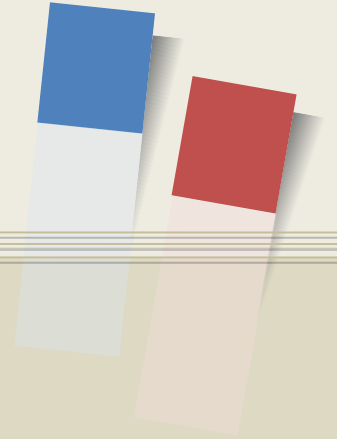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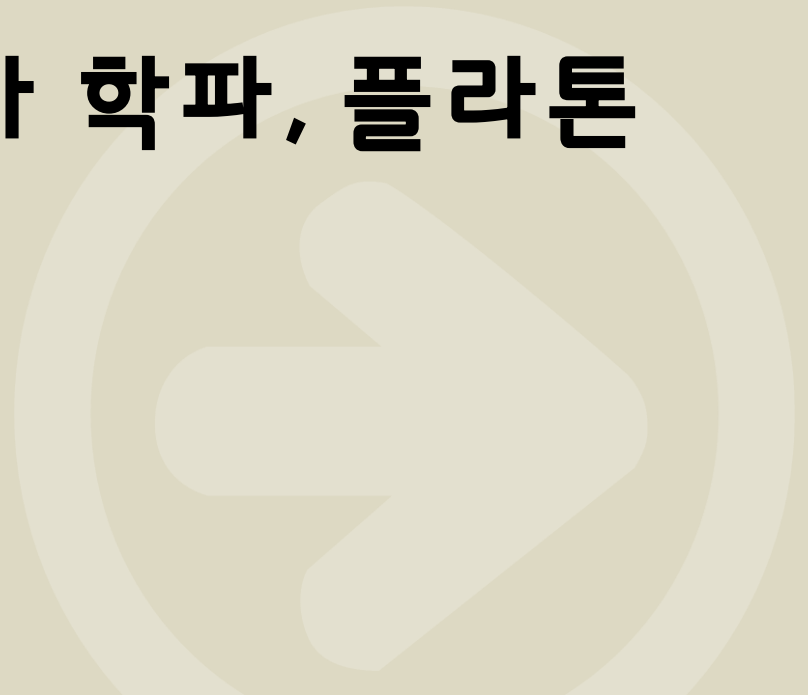


# 철학이란 무엇인가



**소크라테스, 엘레아 학파, 플라톤**





# 소크라테스



- ❑ 앎(episteme; knowledge)과 의견(doxa; opinion)
- ❑ 앎
  - 객관적
  - 모두에게 공통적임,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음
- ❑ 의견
  - 주관적
  - 개인마다 상이함



# 소크라테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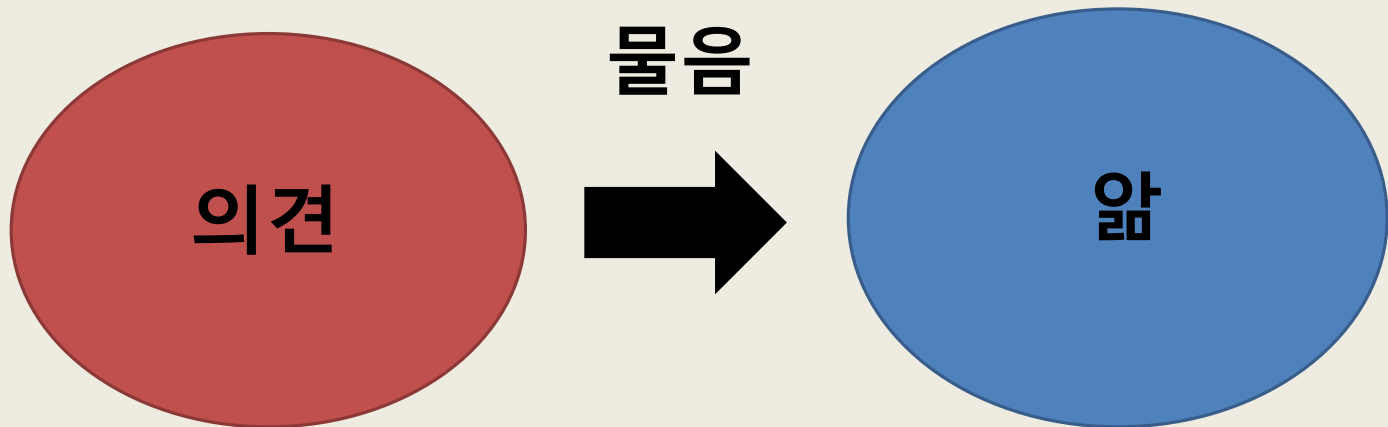
- ❑ 소크라테스: 의견 → 주장과 반박, 물음과 대답, 토론  
→ 앎에 접근 or 도달
- ❑ 소피스트: 주관적 의견의 최종성
- ❑ ‘지혜란 무엇인가’, ‘용기란 무엇인가’에 대해 답하려는 시도는 그에 대한 앎이 가능할 때 유의미
- ❑ X(의 정체성)에 대한 물음과 대답의 활동: X에 대한 앎의 가능성을 전제 → 철학



# 철학의 가능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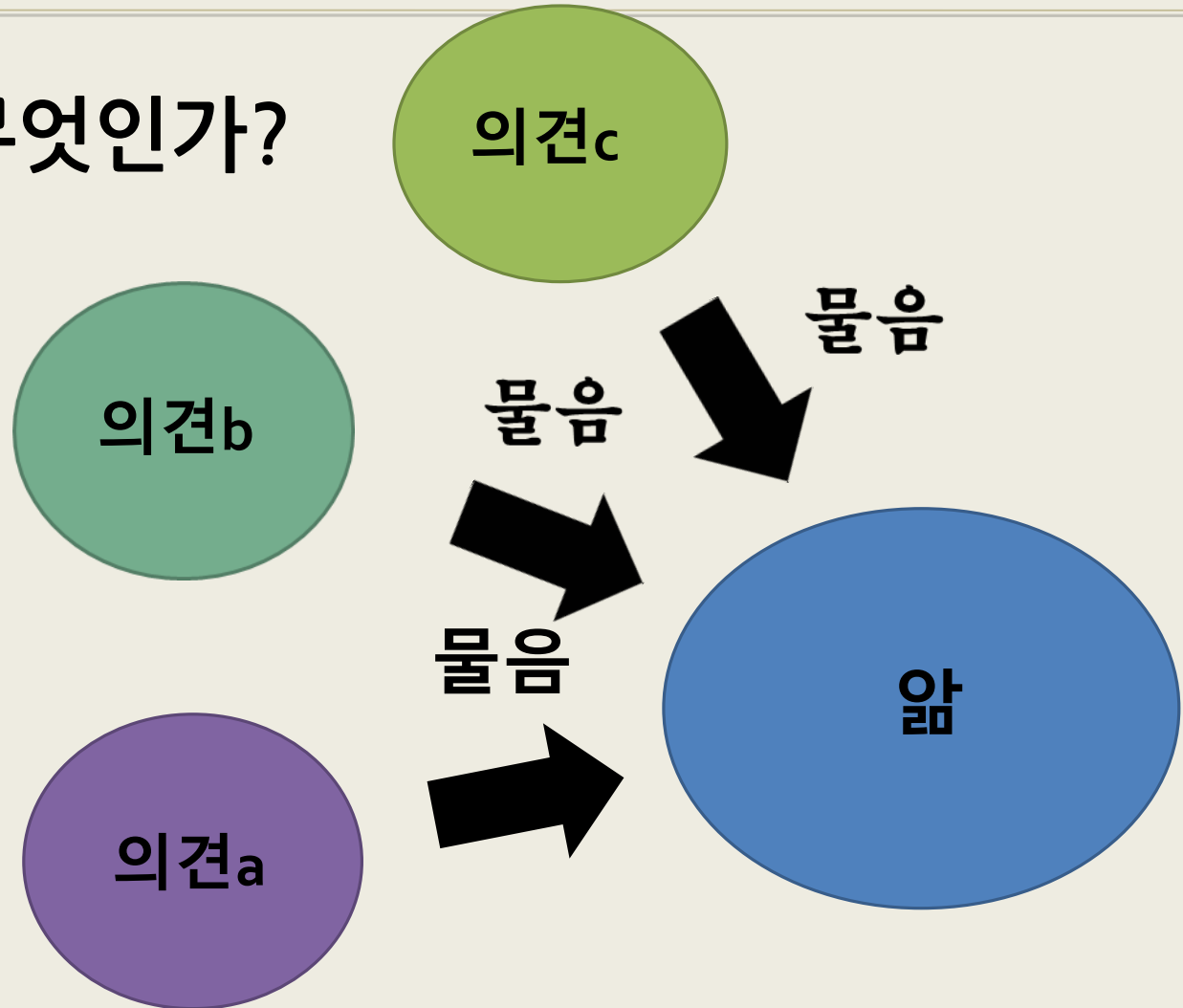
□ ‘용기’란 무엇인가?





# 철학의 가능성

□ ‘용기’란 무엇인가?





# 엘레아 학파: 파르메니데스

- ❑ “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”: 진짜 존재하는 것은 생성·소멸하지 않고, 무로부터는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음.
- ❑ “존재하는 것은 부동의 일자”: ‘존재’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음 → 자기와 동일하게(identical) 존재, 영원히 동일한 자기정체성(self-identity)을 소유, 완전하므로 변하지 않음.



# 엘레아 학파: 파르메니데스



- ❑ 인식과 생각의 대상은 존재일 뿐, 무는 인식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
- ❑ 현실: 가상일 뿐, 진짜 ‘존재’가 아니다 → ‘앎’의 대상이 아님.
- ❑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에 대한 생각(존재론)은 서양 학문의 기초: 움직이고 변하는 현실 뒤에 변하지 않는 자기동일성을 가진 것이 진정한 인식의 대상



# 엘레아 학파: 제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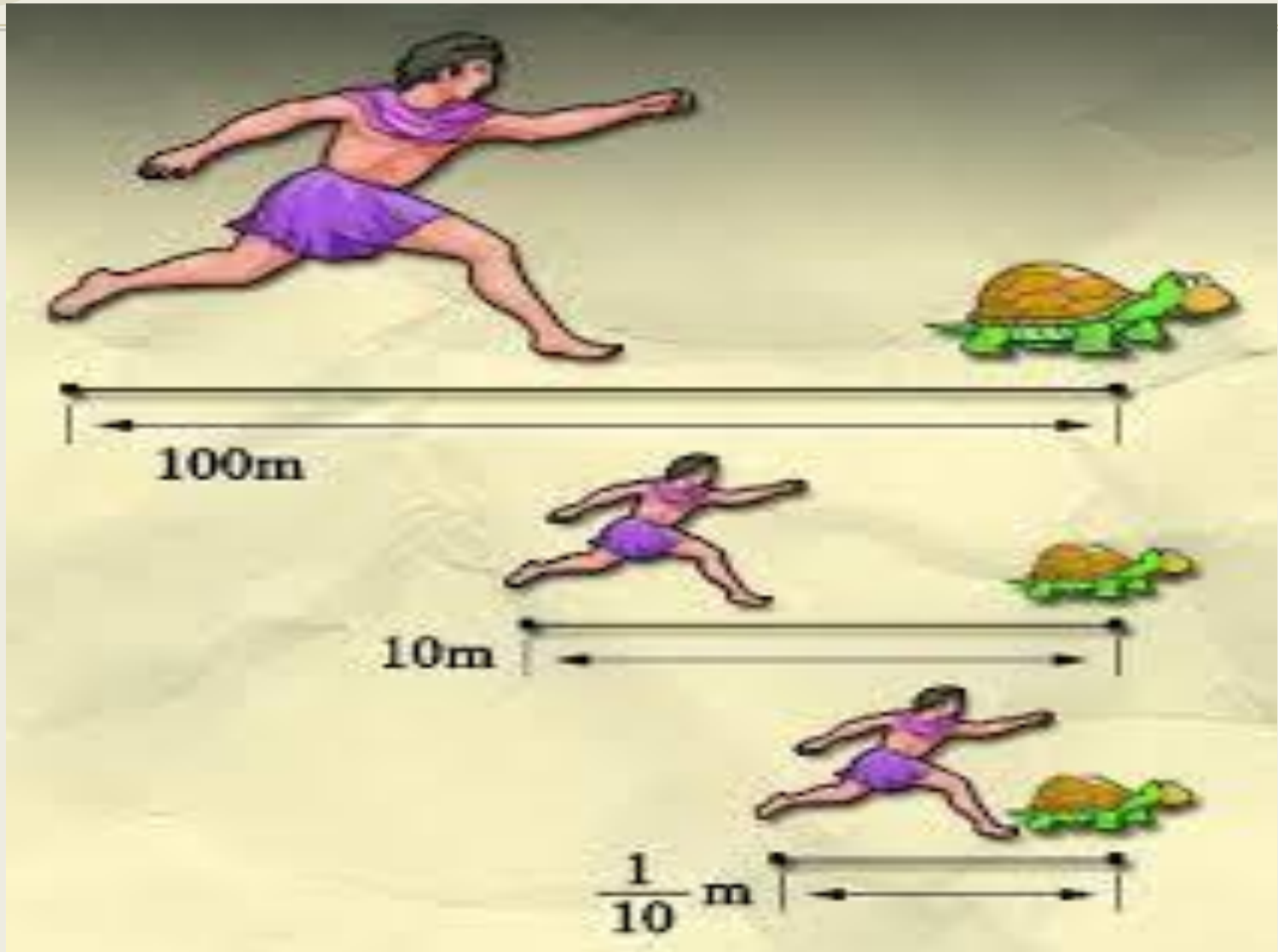


- ❑ 제논의 역설: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
- ❑ 현실(운동과 변화)은 불합리 → 현실은 진짜 ‘존재’하는 것이 아니다: 파르메니데스의 학설 옹호





#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





# 엘레아 학파: 제논



- ❑ 운동: 정지해 있는 순간들의 합 (영화필름)
- ❑ 무한의 개념: 운동하는 구간을 무한히 쪼갤 수 있다:  $1\text{초} = 0.5\text{초} + 0.5\text{초}$ ,  $0.5\text{초} = 0.25\text{초} + 0.25\text{초}$ ,  $0.25\text{초} = 0.125\text{초} + 0.125\text{초} \dots$
- ❑ 미분/적분의 개념
- ❑ (무한히 흐르는) 시간을 배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역설



# 운동은 정지된 순간들의 합





# 플라톤의 과제



- ❑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·강화하고 소피스트에 반대
- 인식론: 앎의 가능성을 확실히 하여 철학을 정립함
- 존재론: 앎의 토대를 존재론(이데아론)에서 구함
- 사회철학: 앎의 존재론적인 토대는 국가공동체의 토대



# 이데아론



## □ 소피스트와 엘레아 학파의 사잇길

- 소피스트: 객관적 인식을 부정하고 주관적 의견(현실)만 인정
- 엘레아 학파: 현실을 부정하고(현실=가상), '존재'만 인정

→ 존재와 현실을 모두 구제: 이데아론



# 이데아론



- ❑ 파르메니데스의 존재: 일자 vs 이데아: 복수  
→ 현실에 있는 사물들의 종류만큼 많은 이데아가 있다.
- ❑ A의 이데아: 가장 완전한 A의 존재
- ❑ 그런데 ... 이데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.
- ❑ 이데아론은 이원론: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의 세계



# 교실이데아



- 됐어(됐어)이젠 됐어(됐어)이제 / 그런 가르침은 됐어/ 그걸로 족해(족해)이젠 족해(족해)  
매일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/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/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속에 /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 
막힌 짹 막힌 사방이 막힌 / 널 그리곤 덩싹 모두를 먹어 삼킨/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 
좀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/ 네 옆에 앉아있는 그애보다 더 / 하나씩 머리를 뺏고 올라서도록 해 /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...



# 이데아와 앎

- ❑ 이데아에 대한 앎이 완전하고 객관적인 인식: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존재(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)에 대한 앎이 진정한 앎이기 때문
- 이데아의 존재는 앎의 토대: 이데아가 존재하므로, 이데아를 인식하려는 우리의 인식 활동은 목표, 방향, 의미를 얻는다.





# 이데아와 정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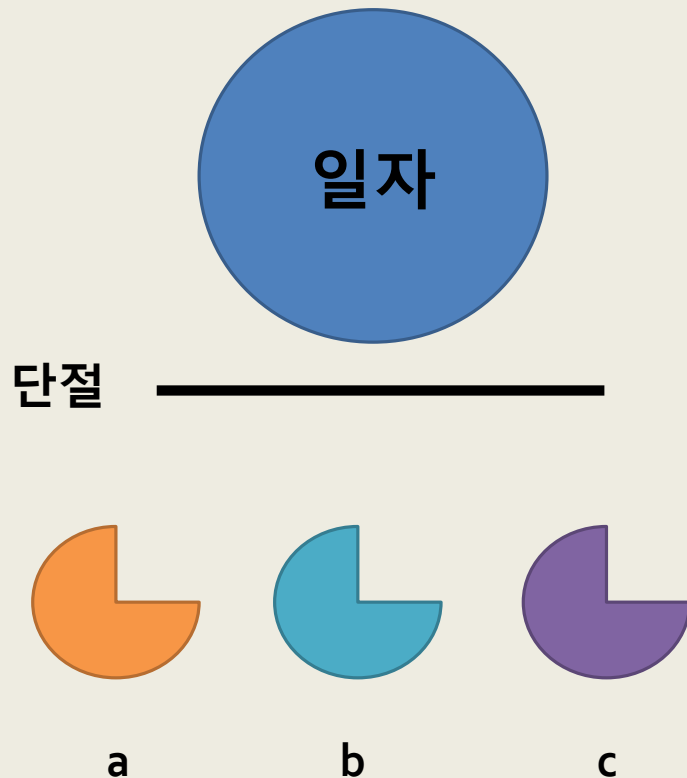
- ❑ ‘개란 무엇인가’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답: 개의 이데아
  - ❑ ‘양념치킨이란 무엇인가’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답: 가장 완전한(맛있는) 양념치킨
  - ❑ ‘구두장이란 무엇인가’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답: 가장 완전한 구두장이...
- 이데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정체성 (identity)과 본성(nature)을 이룬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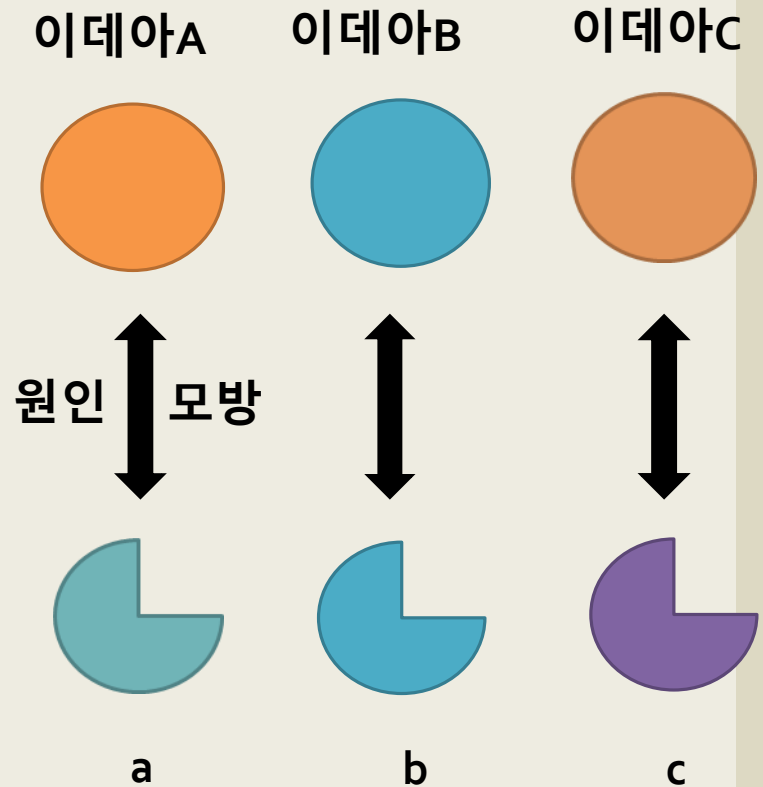
#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



파르메니데스



플라톤





#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(1)



- ❑ 이데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의 본(model), 표준(standard)
- ❑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본과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들
- ❑ 이데아는 현실의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과 척도를 보여줌
- ❑ 건축을 위한 건축도면과 같은 역할



##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(2)



- ❑ 이데아: 단지 모델, 척도의 의미를 넘어서다 → 현실보다 먼저 존재
- ❑ 이데아는 현실의 원본(original),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물(모사물, 복사본copy)로서 존재
- ❑ 현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물



#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(3)

- ❑ 모방 (mimesis):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
- ❑ 존재의 나누어 가짐(methexis; 분유分有): 현실은 이데아의 가장 완전한 존재를 일부분 나누어 가짐으로써 불완전하게 존재함
- ❑ 닮음의 관계: 이데아 ( $A$ )  $\rightarrow$  현실 ( $a^1, a^2, a^3, \dots$ )  $\rightarrow$  상( $a^{1-1}, a^{1-2}, a^{1-3}, \dots$ )
- ❑ 현실적 존재: 이데아의 그림자
- ❑ 상(image): 현실적 존재의 그림자





##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(4)



- 제화공의 이데아는 현실의 제화공의 원인
- = 현실의 제화공은 제화공의 이데아를 모방
- = 현실의 제화공은 제화공의 이데아를 분유



제화공의 이데아  
(= 제화공의  
자기동일적인 본성)

원인



모방, 분유

현실의 제화공



# 존재의 정도와 등급



이데아	가장 많이(완전하게) 존재함
현실	다소간 존재함
상(image)	가장 덜 존재함





# 존재와 가치



- ❑ “아주 빨강다”, “많이 빨강다”, “덜 빨강다”: 가치의 차이가 아니다
- ❑ 플라톤(고대의 존재론): “있다”=“가치가 있다” (존재론적 판단=가치론적 판단)
- ❑ “더 존재한다”: 더 가치가 있다
- ❑ “덜 존재한다”: 가치가 덜하다



# 존재와 무 사이의 현실



- ❑ 현실: 완전하게 존재(x), 완전한 무(x)
- ❑ 완전한 존재의 가능성과 완전한 해체의 가능성을 모두 지님



# 이데아와 형태(form)



- ❑ 가장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은 가장 뚜렷한 형태(form)를 가짐
- ❑ 형태(형식, 형상)
  - 존재하는 것들의 (내적인) 본성과 정체성을 이룸
  - 존재하는 것들을 (외적으로) 다른 것들과 구별시켜줌
- ❑ 이데아에서 멀어질수록 형태의 뚜렷함을 점점 상실하고 순수한 재료(matter: 질료) 덩어리에 다가감
- ❑ 현실의 존재자들: 형태 + 질료
- ❑ 이데아: 오로지 형태로만 이루어짐



A(이데아) ←←←	현실	→→→ (순수질료)B
형태(form; 형태)	형태+질료	질료(matter; 재료)
규정성(질서, 조화)	규정+비규정	비규정성(무규정성, 혼돈, 카오스)
동일성(identity)	동일성+가변성	이질성(alterity; 가변성)
불변	불변+변화	변화
영원	영원+순간	순간



# 아카데미아 학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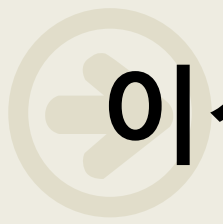






#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





# 이상국가에서의 정체성(사회철학)

- ❑ 사회철학의 주요물음: 최선의 사회상태, 최선의 국가상태는 무엇인가?
  - 플라톤의 대답: “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종사할 때”
- ❑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때 일을 더 잘 해내게 됨: 전사, 농부, 구두장이...
- ❑ 최선의 사회상태: 각자의 적성(identity)에 따라 한 가지 일만을 허용함



# 정의의 문제



- ❑ 정의(justice): 각자에게 마땅히 돌아갈 몫이 돌아가는 것.  
“각자에게 그의 것을(Suum cuique)!”
- ❑ 사회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정의:
  - 각자가 자기에게 고유하고(proper) 적합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
  - 자기에게 고유하고 적합한 일을 하는 상태
  - 자기의 적성과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는 상태





# 이데아론과 정의론



- ❑ 이상국가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직업적 활동을 함:이데아를 모방하여 ‘존재의 사다리’를 타고 이데아에 접근해 간다.
- ❑ 이데아론(인식론/존재론)과 정의의 문제(사회철학/정치철학)의 결합